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붕괴참사 3주기를 맞아 9일 동구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 묵념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학동 붕괴 참사’ 후유증에 운다

피해자·유가족 대부분 우울증·환청 등 ‘정신적 고통’ 여전해 19명 중 11명 ‘극단적 선택’ 생각도...참사 3주기 추모식 엄수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19명 중 11명(57.8%)이 최근 1년 새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이하 연대)는 광주 학동 붕괴 참사 3주기인 9일 광주시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학동참사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등 전국의 참사 피해자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연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학동 참사 부상자 7명, 유가족 12명을 대상으로 신체적 건강·심리적 상태·사회적 관계 등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상자 전원이 재난 이후 ‘신체적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으며,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은 85.7%에 달했다.

부상자 전원이 재난 이후 신경계 질환(만성 두통 등)이 발생했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불안증(85.7%), 불면증(71.4%)을 진단받은 부상자도 다수였으며 전체 7명 중 3명은 환청과 망상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7명 중 4명(57.1%)은 최근 1년 내에 심각하게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가족의 경우 전체 12명 중 11명(91.7%)이 재난 이후 ‘건강이 나빠졌다’고 밝혔으며 소화불량(4명), 두통(5명), 고혈압(2명), 부정맥(1명) 등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울증(8명), 불안증(7명), 불면증(5명), 환청·망상(3명) 등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가족 12명 중 7명(58.3%)이 최근 1년 내 심각하게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으며, 이

중 3명은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연대는 “지난 3년 동안 피해자들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필요성을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과 광주시에 요구해 왔으나 구체화 된 적이 없었다”며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부터 관련 공무원, 수습에 참여했던 경찰, 소방대원까지 피해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또 “학동 참사 당시 사고 버스를 연구 보존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참사를 기억,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 동구청에서는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주최로 학동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엄수됐다.

2021년 6월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건물에 도로 쪽으로 무너져 54년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밀리환초에 끌려간 삼촌 제사도 안지내고 기다렸는데”

강제동원 80년만에 사망소식 접한 유족 “진실규명 제대로 해야”

“밀리환초에서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일제에 의해 남태평양군도에 강제로 끌려간 김기만(담양·1945년 사망)씨의 사망소식이 80여년만에 유족에게 전해졌다. <관련기사 20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과 밀리환초 일제강제노역 일본 연구가 다케우치씨는 유족 김귀남(담양·87·사진)씨를 지난 8일 만났다. 김씨는 삼촌인 기만씨의 사망소식을 전해 듣고 말을 잊지 못했다.

김씨는 시민모임이 밀리환초 학살사건(6월 5일자 광주일보 7면) 회생자 유족을 찾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할머니의 생전 이야기가 생각나 시민모임에 연락을 취했다.

다케우치씨의 연구 결과 밀리환초에서 학살된 조선인은 담양출신 25명을 포함해 모두 55명이었는데, 김씨의 삼촌은 이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

제 4시절부 밀리환초·강제동원 사망자 명부의 426번째 ‘金基萬’이 김씨의 삼촌이라는 것이다. 명부에는 기만씨는 1923년 생으로 1945년 3월 18일 사망(자사·自死)으로 기록돼 있다.

기만씨의 부친은 김광오씨로 기록돼 있는 점에서 김씨의 삼촌이 맞다는 것이다.

김씨는 할머니로부터 삼촌인 기만씨가 19세 나이에 3~4년이면 돌아올 거라며 일본군에 의해 ‘남양군도(밀리환초가 위치한 마셜 제도 일대의 당시 명칭)’로 강제동원됐고 들었다.



초반 2년간은 종종 편지와 약간의 돈을 보내왔지만 그나마도 곧 끊겼다. 해방 이후 강제동원됐던 사람들이 속속 돌아왔지만 기만씨와 밀리환초로 갔던 이들만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김씨의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막내아들 기만씨가 살아있다고 믿었다고 했다.

김씨의 할머니는 “기만이가 왜 안올까”라면서 “(남양군도가) 살기 좋아서 거기에서 결혼해서 사는가 보다”라고 입버릇 처럼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 가족은 삼촌을 사망신고하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간 사람만 있고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채 시간이 지나 점차 잊혀졌다”고 말했다.

이국인 시민모임 이사장은 “김기만씨 유가족과의 만남이 밀리환초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유가족을 찾아 피해자들이 어떻게 동원됐는지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자율전공 ‘유형1’ 수·정시 모두 이과생 유리”

입시학원 분석

학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전공 가운데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자율전공 ‘유형1’ 입시의 경우 자연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주요대학 합격자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최고점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모집인원을 늘리는 자율전공(무전공)은 학생이 입학 후 보건·의료·사범 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 가운데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1’과, 학부 등 광역 단위로 입학해 전공을 택하거나 학교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한 ‘유형2’로 나뉜다.

기준에 자율전공 운영하는 대학 중 유형1 선발을 확대한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전남대(85명→165명), 순천대(27→108), 목포대(13→114) 등이다.

2025학년도 유형1 신설 대학은 국민대(828명), 상명대(530명), 숭실대(439명), 성균관대

(280명), 한양대(250명), 서강대(157명), 고려대(131명) 등이다.

종로학원은 2022학년도 수시모집 내신 합격선(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기준 70% 합격선)은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서울권 인문계열 2.45등급, 자연계열 2.22등급으로 자연계가 더 높게 형성돼 있고, 비수도권 역시 인문계열 4.74등급, 자연계열 4.55등급으로 자연계열이 높다.

학생부종합전형도 2022학년도 서울권 인문계열 3.11등급, 자연계열 2.76등급으로 자연계가 합격선이 높다.

대학별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봐도 2024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고려대(인문 1.50등급, 자연 1.43등급), 연세대(인문 1.69등급, 자연 1.56등급), 성균관대(인문 1.76등급, 자연 1.62등급), 한양대(인문 1.47등급, 자연 1.30등급) 등 모두 자연계열이 우세하다.

정시모집의 경우에도 수능 수학영역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자연계열 수험생이 확률과통계를 선택하는 인문계열 수험생보다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어 자연계열 합격생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광주·전남 본격 무더위...당분간 30도 안팎

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서 광주·전남에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도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고 9일 예보했다.

10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27~32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분포해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광주·전남 지역이 중국 상하이 부근

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져 낮 최고기온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무더위가 예보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높다”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영유아·노약자·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값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